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6. 1

3rd Week

목 차

■ 본문

1. 2016 CES, 자동차 부문 두각과 한국 SKT 연동 시연
2. IEEE, 3D 바디가공기술 관련 사업(표준화 작업) 추진

■ 기타소식 6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2016 CES, 자동차 부문 두각과 한국 SKT 연동 시연

보도날짜 2016.01.07

출 처 ZDnet Korea

사 이 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60107094245

※ <http://www.zdnet.com/article/ces-2016-4-business-trends-to-rule-them-all/>

- 2016년 1월 6일~9일,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일명 '소비 가전 쇼'인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개최됨

- 이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가전제품'이 중심인 전시회이나, 최근 가전시장의 위축으로 '기술(Tech)' 중심의 전시회로 바뀌어 다른 업종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카, 모바일 분야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었음



이미지: <http://www.cesweb.org>

- 한국 SK텔레콤은 CES에서 사물인터넷(IoT) 표준인 oneM2M과 OIC의 연동을 세계 최초로 시연했음

- 이번 시연에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전자부품연구원(KETI), 아트멜, 엑스톤 등이 참여하였고, SK텔레콤의 oneM2M¹⁾ 기반 IoT 플랫폼인 '씽플러그'(ThingPlug), 삼성전자의 OIC²⁾ 표준 기반 가전기기, 아트멜의 센서 및 조명키트, KETI와 엑스톤에서 개발한 'oneM2M-OIC 연동 솔루션' 탑재 게이트웨이가 사용되었음

- 한편, ZDnet은 CES 2016에서 대두될 4대 트렌드 주제를 선정하였음

① 자율 주행(Self-driving)

- 포드(Ford)와 구글(Google)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파트너 체결을 발표함. 구글의 자율 차량에 관한 심층 연구와 포드의 제조 기술력이 협력한다면 그 힘이 더 강력해질 것임. 두 기업은 2020년까지 약 1000만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운행에

1) oneM2M: M2M(Machine to Machine) 및 사물인터넷 분야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7월 설립된 국제 표준화 기구로써 시스코, IBM, 퀄컴, 화웨이,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세계 주요 국가별 표준제정기관, 기업 및 연구소 2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모바일을 통해 원격에 위치한 기기들을 제어하는데 강점이 있음

2)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사물인터넷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기기간 연결 기술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생태계 구축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단체. 인텔, 시스코, GE, IBM, ZTE, 아트멜,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현재 1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음. 근접 거리 내 위치한 기기 간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이 있음

대한 계획을 구상중임

② IoT와 웨어러블(wearables)

- 애플워치 및 기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용성 문제가 대두되고 기기 중 50%가 사장되는 실정에서, 애플워치가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큼. 많은 기술자와 개발자들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전반적인 IoT 및 웨어러블이 성숙되고 있고, CES 2016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③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 2016년에는 플랫폼 및 하드웨어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s Reality) 또한 불꽃 튀는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소니(Sony),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쿨러스(Oculus)/페이스북(Facebook, HTC/Steam 등의 기업들은 모두 2016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CES 2016에서 새로운 생태계 및 콘텐츠 파트너의 발표와 신제품 정보를 공개함

④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deep learning)

- CES 2016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IoT, 증강현실 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을 다루지만, 이는 AI, 기계학습, 자연스러운 언어 프로세스(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딥러닝 등과 함께 관심 밖으로 사라졌음. 하지만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인류 혁신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기반 기술임

2. IEEE, 3D 바디가공기술 관련 사업(표준화 작업) 추진

(New IEEE Standards Association Initiative Aims to Accelerate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by Harnessing Cutting Edge Research & Innovation for 3D Body Processing Technologies)

보도날짜 2016.01.06

출 처 IEEE-SA

사 이 트 http://standards.ieee.org/news/2016/3d_body_processing.html

- IEEE는 3D 바디 가공기술 표준에 대한 기술, 소매업, 연구, 표준 개발에서부터 리더십 의견을 위한 '산업 연결(IC, Industry Connections) 사업' 추진을 발표함
 - 이번 사업에는 바디랩(Body Labs), 브로즈웨어(Browzwear), 피시맨&토빈(Fishman & Tobin, 글로벌 브랜드 그룹 부서), 거버 기술(Gerber Technology), 인텔(Intel), 옵티텍스(Optitex), USC 바디 컴퓨팅 센터, 자포스(Zappos) 등이 참여함
- 이번 사업에서 표준화는 형태 유형 및 분류, 품질 규격과 매트릭스, 테스트 방법, 통신, 공유와 보안의 프로토콜, 개인정보 지침 등의 작업을 진행 중임
 - 3D 스캐닝, 모델링 및 시각화(visualization) 등과 같은 바디 가공 파이프를 통한 지속적인 진보로, 옷과 같이 신체 위에 있는 "온더바디(On-the-Body)"와 인간 형태인 "오브더바디(Of-the-Body)"의 모델을 상세하게 구현하기가 쉬워짐
 - 예를 들면, 현실적인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몸과 스타일에 꼭 맞는 의류를 찾음으로써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콘서트에서는 시각적 효과를 높여줌
- IEEE-SA IC의 핵심멤버들은 2016년 내 가상 및 대면(face-to-face)형식과 관련한 표준 범위 활동과 연구 및 혁신 스펙트럼 등에 대한 활동을 계획 중임
 - IC 활동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기술 생명주기 안의 전략 포인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공유된 다양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틀 내에서 IEEE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IEEE-SA의 IC '3D 바디 가공' 활동의 의장이자, 인텔의 전략 및 제품 개발팀인 루치아노(Luciano C. Oviedo)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기술 및 시장 침체를 줄이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 사고의 통합과 최첨단 연구와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에서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http://standards.ieee.org/develop/indconn/3d/bodyprocessing.html> 참고

기타 소식

ANSI, 2016 ANSI 국제절차 개정 검토 웹회의 개최

- ▶ 출처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a3c95935-f8d9-4979-914b-e5f0ae256233 (2016.01.04.)
- ANSI의 표준 절차 관리부(PSA, Procedures and Standards Administration)는 2016년 1월에 개최될 웹회의에 모든 ANSI가 공인한 미국 기술자문그룹(TAG)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 이번 웹회의에서는 2016년 ANSI 국제절차 개정, 2016 ISO TAG 절차 준수양식, 2015 TAG 연차보고서 및 제출 과정을 리뷰할 것임